

생태적 노동의 의미와 불안정성에 대한 탐색: 청년 생태활동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인정** · 이지은***

요약

본 연구는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청년이 지닌 생태적 노동의 의미와 방식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며 생태적인 노동방식을 구축하려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동의 의미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14명의 청년을 만나 생태적 노동의 의미와 방식, 그리고 이들이 처한 불안정성을 묻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청년들은 타율적이고, 착취적인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비(非)착취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나아가 지향에 알맞은 자급방식의 생태적 노동을 주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노동은 청년들로 하여금 GDP에 포괄되지 않는 수많은 노동을 자각시켜주었으며, 이는 공생공산의 세계관으로 이어져 자기이해적 재생산운동을 지속하는 기제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생소한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무위'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최소한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소위 '운' 좋은 몇몇의 청년들만 삶의 지향과 일치하는 노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유급노동 중심의 논의를 벗어난 서사는 다양한 방식과 의미를 지닌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이 포괄될 수 있는 보편적인 소득정책 및 사회인프라 도입, 생태적 노동 체험영역의 확대, 평등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생태적 노동, 생태적 삶, 청년, 노동경험, 불안정성

* 인터뷰를 수락해준 연구 참여자들과 논문의 구성 및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 박이은실, 백승호, 김윤영 선생님께 감사를 전한다. 인터뷰는 두 편의 논문으로 작업되었으며, 다른 한편의 논문은 이지은·한인정·김교성(2023)으로 출간되었다.

** 주저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hanpalme@gmail.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rosmary789@gmail.com)

1. 서론

현대사회는 청년을 노동가능인구로 분류하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이자 예방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년들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의 코너 'MZ오피스'에 등장하는 '맑은 눈의 광인'1)이라는 캐릭터가 최근 청년(일명 MZ세대)노동자를 희화화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 캐릭터는 임금을 받은 만큼 업무를 처리한다. 회사 상사의 지적에는 이어폰을 끼고 대응하며, 회식시간은 영양분을 채우는 시간으로 인식한다. 소위 회사 내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이야기를 '소음'(noise)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 캐릭터는 '사축인간'2)이 되기를 거부하는 드라마 직장의 신 여주인공 '미스 김'3)을 연상시킨다.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올린 채널에서는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이라는 태그를 단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조회 수 800만 이상을 기록하는 '조용한 사직' 영상에는 실제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일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기대하는 문화를 거부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보다 방어적인 방식으로, 의미 없는 업무를 반복하는 직장에서 자아실현을 바라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이처럼 복잡한 회사 관계, 무의미한 노동을 탈피하는 현상 아래에는 어두운 민낯이 숨겨져 있다. 국내의 평균 자살률이 2011년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20대 자살률은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20대 우울증 환자는 17만 7천명으로 2017년(7만 8천명)보다 127.1% 급증했으며, 불안장애 환자도 같은 기간 5만 9천명에서 11만 명으로 86.8%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국내외 학자들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불안장애, 우울증, 자살 등의 원인을 낮은 사회적 지지, 수면 장애, 격리와 피로감, 외로움과 정신질환 등에서 찾지만, 급증하는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일본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형 우울증'4)에 대한 상담이 증가

1) 티 없는 눈빛으로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하며 일명 '광기'를 보인다는 풍자적 표현이다.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동그란 눈을 부릅뜨고, 자기 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는 회사 내 어떤 관계에도 관여하지 않고, 임금 이상의 노동도 하지 않는다.

2) 회사와 가족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자신의 자유의지와 인생을 회사에 좌지우지 당해 회사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직장인을 뜻하는 신조어다.

3) 일본 드라마를 각색한 KBS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과거에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불경기에 의해 믿었던 직장에게 정리해고 당한 뒤, 철저히 회사가 아닌 자신만을 위해 일한다. 오로지 믿을 것은 스펙(124개의 자격증 보유)뿐, 회사 내 어떠한 인간관계도 맺지 않는다.

4) 물질적이고 위생적인 면에서 다양한 결핍과 오류가 사라졌고,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어 고민하는 현상을 뜻한다. 신형우울증은 애정결핍, 열등감, 불신처럼 뜨거운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온도가 높은' 고민과 달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고민, 즉 존재 가치나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온도가 낮은' 고민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의 저작 『무의미한 삶의 고통』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오늘날 수많은 환자들

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신형우울증은 노동, 관계 등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가장 '인간적'인 고민으로 불린다. 문제는 신형우울증의 원인을 의지박약으로 진단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이즈미야 간지, 2017).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우울증에서 자살에 이르는 이 비극적 현상의 실마리는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 출발은 청년 개개인을 세상이 요구하는 규격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며,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환대의 정신일 것이다(김현경, 2015).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한다.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한다.⁵⁾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청년 취업역량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조기제공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다(고용노동부, 2022). 이 중에서도 청년 고용정책의 우선순위는 구직단념청년들에 대한 지원, 조기 취업지원정책 마련 등이다. 구직단념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금액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조기 취업지원정책의 경우 신입생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시점부터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 있는 직업의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졸업준비생에게는 직업과 관련한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즉, 대부분의 정책이 청년을 '일자리'에 연결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의 삶', '청년의 꿈'을 지원하던 정책의 지향이 실상 취·창업 등 유급노동에 축소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노동을 유급노동으로 한정하는 관점을 비단 현 정권이 보유한 특수성으로 보긴 어렵다. 청년노동을 둘러싼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유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노동 유연화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청년 일자리를 늘려낼 것임을 제시하는 연구(유진성, 2015; 조국현, 2016; 신유란, 2017; 전형중, 2017; 장민, 2019), 노동유연화 정책과 정부의 무능력이 청년실업을 높이고 있음을 비판하는 연구(손주영, 2000; 채구묵, 2004; 김성희, 2015; 권혜영, 2016)에서 청년의 불안정성은 실업상태로 한정된다. 청년 내부격차에 주목해 지역(이승준, 2010; 이찬영, 2014; 문영만, 2018; 박종훈 외, 2018; 전명숙, 2018), 성별(강순희, 2014; 추주희, 2017; 전명숙, 2018), 학력(이성균, 2009; 남재욱 외, 2018; 최지수 외, 2019) 등이 이야기하

이 체제모를 무의미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실존적 진공'상태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5) 해당 법안의 실무를 담당할 전(現)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한덕수 위원장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 청년이 꿈꾸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는 차이를 드러내며 불안정성의 영역을 확장한 연구들도 유급노동 및 사회급여를 중심으로 청년의 욕구와 불안정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진단과 처방이 청년의 욕구와 불안정성을 모두 포괄할 순 없다. 실 예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적절한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됐음에도 퇴사를 결심한 청년들의 서사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도’(김초롱, 2017), ‘재미있고 하고 싶은 노동’(천주희, 2019)이라는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욕구들이 드러난다. 노동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봤을 때 각 직군별로 가진 욕구의 다양성 역시 주목해 볼 지점이다. 사회적 기업 노동자(명수민, 2015), 여성자영업자(최나현, 2020), 여성게임개발자(윤명희, 2021), 조리사(문수연 외, 2021), 프리랜서(이승윤 외, 2019)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의 노동경험 속에는 ‘노동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미적 의미’가 드러나고 있으며, 각 지향에 따라 불안정성의 요소가 변화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업/불안정-취업/안정’이라는 도식에 균열을 낸다. 특히 불안정성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있어 Standing(2022)의 논의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Standing(2022: 7-8)은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범주를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였는데, 전통적인 산업노동자에 속하는 사람, 현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민자와 소수민족, 마지막으로 진보적 성향의 청년층이다. 이 세 번째 범주인 진보적 성향의 청년층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진보적인 삶의 지향을 보장받지 못한 채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포착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불안정노동에 관한 연구가 대체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를 다루고 있으며, 진보적인 청년층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진보적 이슈 중 하나인 생태적 노동⁶⁾에 대한 탐구는 미흡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생태적 삶을 기반으로 자연농사·동물권·기후정의 활동 등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을 포착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의 의미 및 불안정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그간 생태적 노동을 다룬 연구들은 생태공동체의 역할을 탐색하거나(정규호, 2008; 구도완, 2009; 백은미, 2012; 김도균·이평주, 2013; 김효정, 2013; 박완희 외, 2014; 홍덕화, 2018; 박선미, 2020; 윤여일, 2020), 생태적 노동의 의미의 원천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유기쁨, 2009, 2016; 조은수, 2011; 옥필훈, 2015; 김재명, 2021),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개인이 경험하는 생태적 노동의 의미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김효정, 2013; 조미성·윤순진, 2016; 최혜영, 2021; 이명호, 2022), 각 개인의 삶의 서

6)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은 기후-멸종위기 등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시대가 비인간 존재의 삶의 터전 및 인간사회 공동체성 파괴로부터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에 현대사회 체제를 공동체적 원리를 기반으로 재편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종류의 생태적 노동을 수행한다(정규호, 2008: 62에서 재인용).

사가 드러나지 않아 삶의 서사 속에서 생태적 노동이 갖는 의의 및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면서 각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에 대해 찾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자는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현실에 위치한 생태적 노동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이들이 처한 불안정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적인 삶의 지향을 갖게 된 계기를 탐색한다. 둘째, 생태적 삶에서 비롯된 생태적 노동의 방식과 의미를 탐색한다. 셋째, 이들의 생태적 노동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에 대해 탐색한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 14명을 대상으로 생태적 노동의 맥락과 의미를 탐색했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청년당사자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청년들의 다양한 노동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가시화해 유급노동 중심의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문헌연구

청년실업이 본격화되기 이전 청년은 복지의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복지란 시장·사회의 영역이 분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복귀를 돕거나 결함으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이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고학력화와 외환위기는 청년을 복지의 주제로 등장시켰다.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비자발적 실업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올려냈고, 청년실업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들로 이어졌다. 청년 의무고용제, 사회연대적 노동시간 구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연구(박성준, 2008; 김영재, 2013; 김성희, 2015)와 정규직 과보호 정책의 철폐 등을 요구하며 노동시장 개혁(장민, 2019), 직업교육 강화(최용환, 2015)를 요구하는 연구들이 진행됐다.

한편, 청년노동의 문제를 '실업'이라는 틀을 넘어 다양한 지표로서, 장기간에 걸친 이행으로서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권혁진·유호선, 2011; 박미희·홍백의, 2014; 이승윤 외 2017; 오유진·김교성, 2019). 청년의 불안정성을 실업이라는 단편적 수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승윤 외(2017)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을 고용안정성, 소득, 사회보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하였으며, 오유진 외(2019)는 청년의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에 여가 혹은 가사활동, 양육상태 등 사회적 측면을 추가하여 청년의 불안정성 논의를 세분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졸남성, 대졸여성, 고졸남성, 고졸여성 순으로 불안정성의 차이가 드러났고, 이를 기반으로 학력(남재욱 외, 2018;

최지수 외, 2019), 지역(김찬중 외, 2009; 송부용 외, 2011; 김영순, 2013; 박주상, 2018; 진형익 외, 2019), 성별(강순희, 2014; 추주희, 2017; 전명숙, 2018), 고용형태 및 직군(이광석, 2017; 이승윤 외, 2019; 김규혜, 2020) 등 청년 내 이질적인 집단 간 불안정성 격차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됐다. 일각에선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진행됐다(권혜영, 2016; 이상아 외, 2018; 김준현, 2019; 허만형, 2021). 권혜영(2016)은 내일배움카드제가 대졸청년층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개선책을 제시하며, 이상아 외(2018)는 지역고용정책 예산의 독립성, 정책형성의 주체성, 노동시장의 정합성, 전달체계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분석했다. 김준현(2019)은 부산광역시를 청년고용상황을 기반으로 지역청년 실업대책의 거버넌스 체계를 비판했으며, 허만형(2021)은 지역별 청년지원제도들(청년기본조례, 청년일자리창출제도, 청년창업지원제도 등)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들의 공통점은 실업 혹은 취업, 유급노동에 기반을 둔 사회급여 등을 통해 청년의 불안정성을 지표화했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들은 청년노동시장의 사회경제적 양상을 드러낼지는 모르지만, 복잡다단하게 발생하는 청년들의 행위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청년세대는 소비사회·개인주의·노동유연화의 시대를 살아왔으며, 대안교육·사회운동·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했다. 이와 같은 청년세대의 고유성에 착안할 때 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삶의 지향을 보유하고, 다른 방식의 노동을 구축하고자 하는 행위성을 지닌 존재다.

김석호 외(2017)는 청년세대의 '꿈(진정성, 자기확신)을 추구하는 방식'에 전통적인 사회경제적조건(성별, 교육수준, 서울 내 지역격차, 가구소득)보다 '사회이동성 인식', '기회불평등 인식',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분석⁷⁾을 내놓는다. 유사한 맥락에서 신경아(2017)는 프레카리아트로서 예술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청년에 주목한다. 그는 여성 청년들이 '을'의 위치에서 겪은 차별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 사회의 위계적 인간관계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경계를 넘어 연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동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은 비단 임금이나 사회급여를 보장하는 수준이 저항의 방식을 지지하고 넓혀나갈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년세대의 노동을 분석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년들의 이직 혹은 퇴사 서사를 분석한 연구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이현서 외(2016)는 청년의 이직에는 '더 나은 임금수준'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추구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사회적

7) 서울연구원은 2017년 6월 서울에 거주하는 20-39세의 미래세대 1천명을 대상으로 서울 미래세대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크게 5가지 분야 ① 개인의 삶의 질과 가치관에 대한 인식 ② 가족 및 대인/사회관계 ③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④ 미래 삶에 대한 기대 ⑤ 기타 및 응답자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 수행, 사회적 인정획득 등 다양한 사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대기업 정규직 퇴사자를 연구한 김초롱 외(2017)는 퇴사의 의미를 '진정성'과 '자기계발'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화(기업가형, 공존형자아형, 다운시프트형, 모라토리움형)하는데, 이 중 '모라토리움형'은 생존의 의미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통해 윤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없다고 여기고, 퇴사 후 대학원, 여행 등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며 의미와 보람을 찾는 일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이들의 서사 속에는 임금, 고용안정성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적 차원 외에도 노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동기가 드러난다.

특정한 직군을 중심으로 노동하는 청년노동자들을 분석한 연구(명수민 외, 2015; 최나현, 2020; 윤명희, 2021)들 속에선 청년들의 '삶의 지향'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공명한다. 주체성을 실현할 대안일자리로서 자영업을 선택한 청년여성을 분석한 최나현(2020)은 청년들이 자영업을 통해,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며 숙련된 창작자가 되어간다고 서술한다. 나아가 자영업을 통해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다는 청년들은 '자신의 방'을 다른 여성동료에게 내어주며 느슨한 공동체를 만드는 공부모임을 만드는 등 사회중심부에서 밀려난 여성들의 피난처이자 누군가의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내는 대안적 공간을 형성한다. 사회적 경제 직군에서 노동하는 청년을 분석한 명수민 외(2015)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각종 기관으로부터 성과기반의 평가를 받는 상황을 전하며, 이 같은 현실이 이들의 노동정체성과 충돌하며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년들의 노동연구에 있어 다양한 삶의 지향과 욕구를 포괄하는 방식의 더 많은 질문과 대답의 목록들을 요구한다. 즉,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목록이라고 불리는 경제적 차원의 틀을 확장하여 청년세대가 갖는 정치적·문화적·미적·존엄 등의 욕구를 포괄한 넓은 일의 지평을 그려나가자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노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태적 노동은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으로 인식된다. 특히 생태 노동에 청년층 참여가 급증하면서 사회 생태적 변화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Marris, 2019; Herbert, 2021). 하지만 '생태적 노동'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다. 개괄적으로 생태노동을 다루는 연구의 첫 번째 분류는 생태공동체에 대한 역할과 의미에 관한 연구다(정규호, 2008; 구도완, 2009; 백은미, 2012; 김도균·이평주, 2013; 김효정, 2013; 박완희 외, 2014; 홍덕화, 2018; 박선미, 2020; 윤여일, 2020). 정규호(2008)는 아산시, 괴산군, 홍성군 등 순환형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 해당 운동이 기존 공동체 운동과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김도균·이평주(2013)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박완희 외(2014)는 청주시 산남동 두꺼비 생태마을, 박선미(2020)는 홍성군

‘자연재배 논 모임’, 윤여일(2020)은 비자립로 시민모임의 활동양상을 살피며 각 공동체의 형성 과정 및 역할을 분석했다. 여성학 계열에선 생태공동체 운동이 대안적 돌봄모델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백은미(2012)는 생협운동을 통해 사적주부들이 사회주부로 역할과 가치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했으며, 강지연(2021)은 금천구 도시농업공동체에 집중하여 지역의 공동체적 돌봄과 활동가들 사이의 역동을 탐구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생태공동체가 형성·운영되는 원리나 지향하는 바가 지역사회, 일의 지형, 정치 지형 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정적인 분석을 진행할 뿐 생태공동체가 형성되는 생태적 노동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한 공동체 내 각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생태적 사유의 발현과 변화를 살피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두 번째 분류는 생태적 노동의 동기 및 생태적 노동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유기쁨, 2009, 2016; 조은수, 2011; 김효정, 2013; 옥필훈, 2015; 조미성·윤순진, 2016; 김재명, 2021; 최혜영, 2021)로서 종교적·공동체 관점에서 생태적 노동의 이유를 찾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며, 각 공동체 각 구성원의 삶의 서사 속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부재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농업공동체 비혼여성(김효정, 2013), 에너지자립운동에 참여하는 주부(조미성·윤순진, 2016), 제주 강정지킴이(최혜영, 2021) 등을 관찰한 연구들은 생태노동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주체화되는 과정에 주목하며, 이들의 생태적 노동의 의미와 실천이 변화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나아가 청년층에 주목한 이명호(2022)는 대학 내 환경동아리 구성원 5명 인터뷰와 청년활동가들의 서면자료를 통해 생태적 노동의 신념과 정체성을 분석하고, 이를 ‘종말론적 두려움’과 연결 짓는다. 하지만 ‘종말론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환경운동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경험 중 일부일 뿐, 다양한 계기로 환경운동에 진입하고 채식, 기후정의활동, 자급농사 등 보다 다양해진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경험을 포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생태적 노동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를 분석했을 뿐 생태적 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혹은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 이에 생태적 활동이 지속적이고,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이명호, 2022: 50).

생태적 노동을 다룬 해외 연구의 경우 Ingalsbee(1996)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불리는 ‘지구 먼저!’(Earth First!) 활동을 하는 이들이 생태적 자아정체성(ecological self identities)을 내면화하고, 생태적 자아를 묘사하고 발화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생태적 자아정체성은 자연과 맺는 강력한 상호작용으로서, 우주적 통일감(cosmic unity), 지구와의 일체감(oneness with the Earth)을 뜻한다. Pellow & Brehm(2016)은 생태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생태사회운동 내 일어나는 프레임 변환을 고찰하며, 생태사회 운동의 지향이 ‘하나의 프레임 변경’이 아니라 모두의 해

방을 지향하고, 사회·생태적 위기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대를 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유사한 맥락에서 Epstein-HaLevi et al.(2021) 역시 생태활동가 7명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감각이 환경문제 뿐 아니라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통해 환경정의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낸다. 유사한 맥락에서, 화석연료, 환경보호, 교육, 플라스틱, 비거니즘 등 기후와 환경정의를 교차하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30명의 청년생태활동가들을 만난 Herbert(2021)는 이들의 지향과 노동방식, 한계 등에 대해 묻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이 탈성장 혹은 녹색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간소화된 생활양식'을 추구하며,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생태위기의 규모와 구조가 너무도 크고, 신자유주의 외의 세계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다수인 상태에서 그들의 급진적 상상력이 몽상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운동의 한계도 언급한다. 그가 제시하는 상상력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활동가, 학자, 시민이 모여 급진적 상상력이 실재하는 공간을 만들고, 구체적인 상상력을 대중과 공유할 때 몽상에 불과한 상상이 일상 속의 정책이 되어 공론장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행위로서 '귀촌'이라는 생태적 실천을 비롯해 생태농, 기후행동, 동물권 옹호, 생태화장실 이용 등 다양한 생태적 노동을 이어나가는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생태적 노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부각하여 생태적 노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노동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 질적 연구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무관하며, 연구자의 신념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연구다(Snape & Spencer, 2003: 19-21; 김인숙, 2016: 98에서 재인용). 또한 일반적 질적 연구는 참여자들이 겪는 경험의 과정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한다(조혜련,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생태적인 삶과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경험을 분석을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 질적 연구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주제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할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Creswell & Cheryl, 2017; 박소영, 2020). 본 연구는 다양한 공간에서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며 생태적인 노동을 하는 청년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병행했다. 의도적 표집과정으로는 에코페미니즘(남원 산내면에 위치한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강의를 듣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을 선정하였다.⁸⁾ 또한 이들로부터 귀촌이라는 선택을 통해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거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물권, 급진적 기후운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추천받아 눈덩이표집 방식으로 추가하였다. 이렇게 취합된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 등에 살고 있는 총 14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급유기농사, 대안학교, 산악열차반대투쟁위, 지리산계더링, 인디밴드공연기획, 우프(WWOOF), 마을만들기, 비건탐식단, 에너지기후행동, YWCA, 동물복지단체, 기후관련 시민사회단체, 기후관련, 가사돌봄, 관제노동, 노래패, 책모임, 정당 등에서 노동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비건이거나 비건 지향의 삶을 살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순번	지역	연령	성별	활동이력
A	경남	30대	남	영화촬영, 지리산계더링, ⁹⁾ 산악열차반대투쟁위
B	전북	30대	남	인디밴드공연기획, 비건식당, 권역지원사업실무, 지리산계더링
C	전남	20대	여	농사(항구네), ¹⁰⁾ 인문학모임, 방과후 학교 생태교사, 생태화장실
D	전남	30대	여	농사, 우프, 마을만들기실무자
E	광주	20대	여	가수, 제로웨이스트샵, 비건탐식단, 기후위기청소년모임, 비질
F	충남	30대	남	농사, 마을교사, 농촌연구소, 에너지협동조합, 녹색당
G	충남	30대	여	농사, 마을협동조합, YMCA 간사
H	충남	30대	남	농사, 마을교사, 농촌연구소 실무, 에너지협동조합, 녹색당
I	경남	30대	남	농사, 동물단체, 토종씨앗활동, 마을지원사업, 생태콘텐츠테제, 우보농장, 생태화장실
J	경남	20대	여	농사, 동물권 출판사, 토종씨앗활동, 우보농장, 생태화장실
K	경기	20대	여	기후관련 시민단체
L	서울	30대	여	기후관련 시민단체, 기후연대체 책모임
M	서울	20대	여	정당 동물권생태위원회, 동물권단체 활동
N	서울	20대	남	정당 동물권생태위원회

8) 아주작은페미니즘학교 탱자에서 주최하는 에코페미니즘 오픈세미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 이후 삶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듣는 강좌다. 세부주제로는 기후위기, 동물권, 자급의 삶 등이다. 오픈세미나에 참여한 대상자는 생태적 삶의 지향을 기반으로, 각종 경로를 통하여 주요 농촌 공동체로 불리는 남원, 홍성, 곡성, 만다라(서울 근교), 옥천, 광주광역시 등에 귀촌하여 각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생태적 노동을 하는 청년들이다. 이들은 대안학교 및 동아리 모임 등을 통해 생태적인 삶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이를 보다 심화시키고 동료들과 성찰하고자, 비(非)제도권 학교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에서 운영하는 ‘에코페미니즘’ 강좌를 신청했다. 해당 강좌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에 생태적 사유와 노동의 연결을 고민하는 것이 목적이며, 오픈세미나로서 전국의 생태적 삶과 생태적 노동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이들은 주 1회 온라인으로 모여 에코페미니즘 계열의 책 15권을 한 달에 한 권씩 읽었다. 또한 월 1회 오프라인으로 전임교수의 공간에 모여 채식을 함께 준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갖게 되는 생태적 노동의 의미를 공유했다.

9) 지역에서 각종 생태적 실험이나 생태적 삶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연결하자는 기획에서 시작

본 연구는 2021년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 14명과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각 참여자별로 최소 1시간 30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심층면접 시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연구에 응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집이나 활동장소 근처, 혹은 자주 가는 카페 등을 인터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심층면접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면담 전 연구 참여자들을 미리 만나서 라포를 형성하고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연구 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와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윤리심의¹¹⁾를 사전 통과하였으며, 참여자에게는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을 요청하였고, 심층면접은 연구목적 외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고지했다. 심층면접에서는 생태적 삶을 접하게 된 계기, 생태적 삶의 가치관 및 세계관, 생태적 노동의 의미, 생태적 노동의 방식,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불안정성 등에 대해 물었다. 심층면접은 내용은 모든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했고, 면담이 이루어진 직후 전사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사례를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양적연구가 통계를 사용해 자료 속에 있는 패턴과 관계를 찾듯, 질적 자료 내에서 패턴과 주제들 사이의 관계를 찾는 일이다(김인숙, 2016). 연구자는 자료를 쪼개고, 비교하고, 분류하고, 개념화하고, 연결 짓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공동연구진과 심층면담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고,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면담 전사본과 연구 참여자의 개인 기록물, 다른 언론매체를 통한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했다. 이후 포괄분석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 개인 사례별로 하나의 줄거리를 만들었으며,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공통점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사례들을 서로 비교해가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갔다. 그리고 각 자료를 의미단위로 분석하고, 각 자료를 비교해가며 생태적 노동의 계기와 방식, 의미, 불안정성의 패턴들을 각각 도출하였다. 이후 패턴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됐다. 캠프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우연찮은 계기로 3천 평의 공유지(숲)를 받게 되어, 유사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부엌, 화장실, 텃밭 등)을 만들고자 한다. 지리산계터링의 재원은 삼선재단의 농촌베이스 캠프 지원사업을 받았다. 또한 계터링 내 진행되는 각종 교육은 지리산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약간의 사업비를 받기도 했다.

- 10) 2013년 곡성 곁면 고정리에 사는 이재관 농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동네주민과 인근주민 34명이 뜻을 합쳐 시골에 사는데 꼭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보급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 단체에는 '적정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술을 나누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모인다. 협동조합원들은 각자 원하는 필요를 말하고 머리를 맞대어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제품의 필요부터, 구상, 실행까지 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는 도시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공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실상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제조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구조와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거대기술을 지양하고, 각자의 삶터에 맞는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을 추구한다. 스스로 자기의 몸을 부리고,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기술인 셈이다.

11)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승인번호 1040395-202108-22)

을 비교해가며 범주를 묶어내고 배열·재배열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치며 추상화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거쳤다. 그 과정을 통해 범주가 명명되고, 범주간의 위치성이 도출되며 주제가 명확해졌다. 이후 분석결과는 기존에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자문하여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쳐 보완됐다.

4. 연구결과

1) 생태적 노동에 진입하는 과정

철학자 이반 일리치(Illich, 2014)는 현대화된 가난을 언급한다. 이 가난은 무력감이며 개인과 사회의 깊은 변화에 기인한다. 산업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사회는 풍요로워지지만, 개인은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이 무력감은 우리 대부분을 관계 안에서 탈락시키고, 오로지 소비의 주체로 남아 있도록 만든다. 생산과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개인은 소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느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Illich, 2014) 살아간다. 이반 일리치를 상기한 이유는, 그의 통찰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기획하며 만난 연구 참여자 중 하나는 자신의 과거 삶을 ‘누군가 속도계를 조정하는 러닝머신 위에서 끊임없이 뛰다가 죽는 삶’이라고 표현했다. 삶의 속도도, 방향도, 자율성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하지만 생태적 삶을 지향하게 된 청년은 ‘좌절’ 속에서 ‘변화’를 결심하며 지향을 정립한다. 어떤 지점들이 그를 좌절에서 변화로, 지향의 적립까지 가능하게 했던 것인가. 본 연구는 청년들의 서사를 통해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이 가능케 된 이유를 차례차례 분석하고자 한다.

(1) 기존 노동에 대한 성찰

① 타올로 가득 찬 노동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강력한 규율의 경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적은 수의 가족에서 수백 명이 다니는 학교로 가게 되면서 견고한 규칙의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학교의 목표는 ‘명문대 입성’이다. 목표가 동일한 이상, 공동체 규칙은 견고하다.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운동장을 뛰고, 아침 먹고, 영어듣기 공부하고, 교실로 가서 10교시가 넘는 수업을 듣는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은 저녁 11시가 넘어서다. 각종 모의고사 준비로 주말에도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일탈은 벌점으로, 혹은 사랑의 매로 통제된다. 그 과정에서 장래희망, 꿈은 사치에 불과하다. 그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 대학일람표에 있는 자신의 성적에 맞춰 가장 좋은 대학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중학교까지만 해도 공부에 흥미를 느꼈다는 청년 F는 각종 규정은 물론, 공부까지도 ‘묻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에 신물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인문계고등학교 생활하면 6시 기상해서, 운동장 한 바퀴 뛰고, 아침 먹고, 바로 영어 듣기 공부하고, 교실로 보내고, 기숙사를 11시쯤 보내주고, 자고. 또 다음날 똑같고. 주말엔 토요일 12시에 보내주고 일요일 2시에 들어와서 자습시작하고. 선생님이랑 늘 싸웠어요. 통제하는 게 너무 많아서. 왜 그러냐. 왜 그래야 하나. 기숙사에서선 강제퇴소조치를 당하기도 했죠. 너무 싸워서요.” (F)

대학 진학 이후의 삶은 어떤가. 당연히 밟아야 하는 졸업, 취업, 결혼, 육아의 코스가 아닌 다른 삶을 꿈꿔보는 이들도 있다. “사람들이 마치 안정성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너무 아등바등 애쓰면서 산다. 사회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춰 사는 것 같아 보인다”(C), “내가 기쁘지도 않은 일을 심지어 주어진 그대로 해야 하는 거라면 얼마나 불행한가. 그것도 평생”(F)이라며 정해진 미래에 발을 내딛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그저 고민 뿐 별다른 대안이 없다. 남은 것은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고, 구성해야 할 시점에서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심정뿐이다. 이미 자율적인 사고와 방식을 꾸리는 능력을 오래 전 빼앗긴데다가, 표준적인 삶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상상력과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에 들어가서는 ‘선택에 대한 시련’을 겪게 된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일을 했던 청년 D는 해당 ‘직무’와 거리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공동체지원사업이라는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가 뜻하는 바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도 부재한데다가, 상부에서 떨어지는 성과표에 맞추어 사업예산을 수행하는 것은 실상 ‘의미 없는’ 노동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내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 디자이너로 일했던 청년 L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에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직업 선택의 회의감이 밀려오는 것은 물론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뭘 하면서 살까’ 생각을 했을 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옥상에 올라가서 눈물을 토르르 흘리면서 ‘나는 나중에 뭘 하고 살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뭐 하는 수 있겠어. 점수에 맞춰서 가장 친한 친구가 진학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대학교 졸업해서 뭐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거, 가족이랑 집에서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집에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밖에 없겠다 그랬던 거지. 그러다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신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 이런 게 저한테 와 닿지도 않았고. 그냥 ‘어떻게 사업했어?’

라고 보고해주면 ‘알겠답다’고 끝나고. 보여 지는 성과가 잘 안 나는 단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때론 공모사업 올라온 걸 성과로 자르고. 진짜 그 일 하면서 회의감 많이 들었어요.” (D)

“디자이너로 일할 때 회사는 좀 더 개발에 집중해주길 바라고 있었고. 근데 생각해봤죠. 인생에서 회사에 쓰는 시간이 되게 크잖아요. 하루에 1/3 정도를 쓰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고. 그래서 인생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 여기 없다는 감각이 커졌고. 잠들 수 없었고. 한계점이 느껴졌고. 퇴사를 한 것 같아요.” (I)

하지만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몇 번의 이직 끝에 직업으로서의 흥미는 포기한 채,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임금’, ‘고용안정성’에 안주하고자 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사회에선 이마저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결국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면 청년 G는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며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매달려 있는 느낌’(G)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② 성취와 착취의 피라미드

다른 선택을 하는 청년도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문구처럼, 줄 세우기를 인정하고, 대열의 첫 번째 자리에 서겠다는 욕망을 갖는 이들도 있다. ‘자기 개발 신화에 발을 들이며 1년에 책 100권을 읽고’(I) 베스트셀러 저자들의 강연을 쫓아다녔다는 청년은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자기개발서 몇 권 읽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I)며 웃어보였다. 유사한 경험을 가진 청년 A는 과거 다큐멘터리 감독을 지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삶의 지향 및 직업선택 과정 전부가 ‘사회의 기준’이라는 타율적인 목표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성과물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중요했다는 것이다. 즉,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의미 혹은 엮여지는 관계에 대한 성찰보다, 노동의 성과물을 우선시 했다는 이야기다.

“사실은 성공한 미디어 기업. 그런 꿈을. ... 야심에 가득차서 현장에 있었죠. 가부장적이고 빅맨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고. 사회적 성취를 통해서 인정 욕구를 해소하고 싶었어요. 당시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엄청 권력이나 내지는 힘으로 느껴졌거든요. ...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힘을 가졌다고 봤어요. 내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A)

하지만 주체성이 결여된 선택은 개인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할뿐더러 제대로 된 성취를 일궈

내기도 어렵다. 최소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심지어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과정에서 자연을 아름답고, 경이롭게 연출하기 위해 동물을 카메라 앞에 묶어놓는 일을 한다. 이처럼 노동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은 이러한 노동으로 인해 삶이 침식당하는 경험을 한다. 착취의 주체이자 객체가 된 청년은 '성취'의 이면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나 자신과 다른 생명을 착취하며 이뤄야 할 성취가 무엇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결국 청년 A는 질문만 계속 쌓이는 착취의 피라미드 앞에서 '멈춤'을 선언한다.

“자연을 연출하기 위해, 아름답거나, 경이롭거나 되게 신비한 것들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사냥하거나, 새끼를 낳는 그런 장면인데. 잡아먹히는 장면을 찍어야 하는데. 잡아먹히는 그런 동물을 이제 우리가 카메라 앞에 묶어놓고 촬영을 해요. ...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제가 열정페이도 받고 그런 시절이거든요. (노동 시간이) 거의 12시간은 기본이고. ... 나 스스로를 착취하고, 다른 생명을 착취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해도 안 됐고.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 쌓였고. 계속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계속 한다 하더라도 나도 나를 착취하는 저 사람, 다른 생명을 착취하는 저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을 아니깐.” (A)

성취의 이면이 보이기 시작하자, 일상에서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부채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다큐멘터리 감독 일을 그만두고 목수 일을 시작했던 청년 A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숲과 흙 안의 곤충, 동물의 서식지, 풀들에 감정이 이입됐다고 고백한다.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장애인 시위(G), 청도대남병원에서 고립된 정신장애인(E)을 보며 내가 성취하는 것이 누군가의 착취와 연관된 것은 아닐지, 나의 특권은 아닐지 성찰하게 된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통해 성취 이면의 동물착취를 발견했다는 청년(C, E, J, K, L, M)들의 이야기도 유사한 경험을 털어냈다. 우선,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L) 자신의 행동에서 가해자성을 발견한다. (육식문화로 연계된) 관계와 단절해야 한다는 공포심(J)도 가지고 있지만, 현 세계에 벌어지는 착취를 외면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M)이 우선이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살해를 외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기반으로, 가해자로서 정체성을 전환하며, 공범의 위치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으로서 채식을 실행한다.

“다큐12)13)보고나서 세계관이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육식사회가 엄청난 착취에 기반해서 세워진

12) Kip, A. (2017). What the health. A.U.M. Films & Media.

13) Monson, S. (2005). Earthlings. Nation Earth.

세계잖아요. 사실 한국사회 청년 여성으로서 그런 감각을 느끼기 어려운데 그런데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내가 가해자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느꼈고. 제가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사는 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해보자가 아니라 할 수 밖에 없었죠.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 (L)

특히 그 과정에서 경험한 비질(Vigil)¹⁴⁾은 많은 청년들에게 현 세계가 성취했다고 누리고 있는 것들의 이면을 자각시켜주는 통로가 된다. 도축장에서, 열악한 핏삽의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얼굴과 표정을 마주한다. 청년 E는 그 순간을 ‘착취적인 사회, 매트릭스에서 자신이 마취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이었다고 정의한다. 이 과정은 나의 삶은 물론, 누군가의 삶을 연료로 성취하는 것들을 인지하는 과정, 가해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기실 마취에서 깨어난 감각은 비극 그 자체(N)다. 거대한 고통의 파고 앞에서 극도의 무력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화성시 도축장에서 처음으로 돼지를 봤고, 동화책으로 봤던 이미지와 너무 달랐어요. 너무 어린 돼지들이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오물의 냄새가 나고. 그럼에도 각자 너무도 다른 개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도살장으로 빨리 들어가듯이 가는데. 그저 할 수 있었던 일은 전기 도살 당할텐데 제 발 깨어나지 말기를. 기도밖에 할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폭력이 이뤄지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일상이 폭력이구나. 인간/비인간동물, 도시/지역, 장애/비장애 등등 차별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M)

탈각의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삶과 노동을, 그간의 실천을 되돌아보게 된다. 시민단체에서 일하거나, 사회적 경제를 후원하거나,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몇몇 영웅이 탄생하는 것조차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각종 시민단체, 동물단체를 경험한 청년 I는 ‘케어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사건’¹⁵⁾ 등을 언급하며,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 K는 채식, 재활용 등 개인적인 실천으로 변혁할 수 없는 축산업, 산업구조의 영향력에 대해 성찰하

14) 비질(Vigil)의 원래 뜻은 밤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토 피그 세이브(Toronto Pig Save) 단체에서 2010년 축산업 피해자를 마주하기 위해 도살장 앞으로 찾아가면서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서울에 니멀세이브(Seoul Animal Save) 외 각종 소모임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질은 도살장이나 수산시장 등 동물의 죽음이 있는 곳에서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목격할 것을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을 전반적으로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15) 2019년 1월 박소연이 대표로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4년간 개 수백 마리를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뉴스타파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박 대표가 안락사를 함부로 시행한데다가, 대외적으로는 은폐를 시도해왔다는 점 때문에 박소연의 사퇴촉구 기자회견도 열렸다. 박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안락사에 대해선 내부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부규정에 대한 명확한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안락사를 시행하고 은폐하는 박 대표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가 기만이라며 ‘사기·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박 대표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게 된다. 호주에서 우프¹⁶⁾를 진행했던 청년 D는 거대한 규모의 양배추 농장에서 임금을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이 뿌려지는 광경을 마주했다고 한다. 그는 그 이후 채식주의자로서 죄의식 없이 먹었던 호주산 양배추를 보면서도 부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착취의 범위를 국민국가를 넘어서 세계화된 시장으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위치 짓기는 또 다른 실천의 통로로 이어진다. 착취적인 방식의 농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상품을 이용한다든가, 토종씨앗을 심는다든가 등의 지역순환 및 자급하는 방식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 자체가 구멍 난 항아리인거야. 근데 이걸 하나 막겠다고 내 삶을 바쳐가면서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게 멋있고 중요하지만, 계속 여기저기가 빵구 나고. 그때마다 시민단체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럼 또 후원해주고. 전 그때 케어에서 일을 할 때인데. 이게 박소연 대표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시스템의 문제고.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는 게 있을까. 대안적인 삶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다녔죠.” (I)

“멸종반란¹⁷⁾이 생겨서 영화¹⁸⁾보려고 갔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냥 멸절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는지 모르겠고,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울분을 토하셨어요. 저는 비거니즘을 하면서 이제 축산업이 기후의 영향이 있고 그런가 보다 비건을 계속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폭력이 남을 안 때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폭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비폭력 실천을 하려면 폭력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비폭력이라고 부를 정도의 충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K)

“호주에서 축구 월드컵 경기장보다 훨씬 큰 크기의 양배추 농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면서 비료나 화학 비료나 살충제나 제초제나 같은 약들을 뿌린 먼 바다를 건너가지고 한 봉지에 들어있는 거겠지. 비건이면 모든 식물을 먹을 수 있나 아무 착취가 없나

16) 우프(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WWOOF)는 1971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143개국에서 시행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으로서, 유기농가에서 하루 4-시간 일손을 도와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이다. 우프의 이념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퍼(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유기농을 배우고 체험하게 하여, 일손이 필요로 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거주자들에게 농촌에서의 삶과 농사짓는 일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유기농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며, 농촌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서로 다른 문화교류를 하도록 도와준다.

17) 멸종반란(Extinction Rebellion)은 영국에서 출발한 비폭력시민불복종 기후정의 운동을 하는 단체다. 멸종반란한국은 멸종반란의 한국지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생명’, ‘사랑’, ‘분노’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방식의 행동을 진행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현 시대가 기후생태위기를 직시하고,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멸종반란 한국은 기후위기, 돌봄, 여성, 지역 등의 이슈를 내세우며 주요 이슈별로 직접행동을 기획해 비상사태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국내모임은 수다모임, 네트워크 활동, 소통 등을 진행하며, 해외 멸종반란과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직접행동을 기획하기도 한다.

18) David, A (2020). A Life on Our Planet. Altitude Film.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거 양심에 찢린다.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줄인다.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먹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길러서 내가 먹는 거야'로 귀결이 됐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D)

타율적이고도 착취적인 노동을 벗어나 새로운 노동을 기획하겠다는 청년들은 오랜 성찰과 인내의 과정을 경험한다. 때로는 '정상(일반)적인 궤도를 벗어나 실패한 것'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대안적 노동에 대한 막연함이 컸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자율성과 비착취적인 노동에 대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은 '왜 이렇게 유난스럽냐'는 말은 물론, 심지어 '착취 없는 삶이 가능하냐 한 거냐고'(J) 조롱을 당하기도 한다. 결국 착취를 정당화하며 성취만을 쫓아가는 노동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심과, 생계의 막중함 사이를 오가며 청년들의 혼란스러움은 증폭된다.

“돈 버는 일보다 일단 제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임금노동을 했습니다만, 생활비는 벌어야 하니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한숨) 그래도 항상 밤에는 이런 거(다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찾아보고. 내가 뭘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어서.” (C)

(2) 다른 여정과 변곡점

청년들은 결심을 유지하고,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간다. 청년 D는 우프를 하면서 인간과 비인간동물의 위계적 관계를 넘어서는 반려종으로서의 동등한 가능성,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실천(유기농)을 발견한다. 타율적이고 착취적인 삶이 아닌 다른 가능성의 삶과 노동을 '지금-이곳'에서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낸 셈이다.

“호주에서 우프를 하며 거기 호스트-친구들의 모습에서 자연과 사람이 관계 맺는 모습, 겸손한 마음들을 보게 됐어요. 바다에 가면 풋말이 있어요. '강아지와 동행하지 마시오, 이곳은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새들의 서식처입니다'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라고 하면 막 쓰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의 서식자 중 한 명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랄까요.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제야 길이 보였어요. 이런 방식의 농사를 지어보면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겠다'는 생각이 든거죠.” (D)

그 과정에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과의 만남이 성사된다. 세상의 위기에 홀로 대응하고 있을 동물들과 함께 하겠다는 한 청년활동가의 울분, 추운 겨울 명동 한복판에서 가이포스

크 가면을 쓴 동물권 활동가의 외침, 퍼머컬처학교¹⁹⁾ 등 유사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청년들은 새로운 삶과 노동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마주한다. 자율적이고도 비착취적인 삶이 책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일거라고 생각했던 청년 B는 지역에 내려와서 이미 오랜 기간 자율적이고도 비착취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온 이들을 만나자 그 옆에 서고 싶었다고 말한다. 토종씨앗보존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I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율적이고도 비착취적인 삶의 원형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유사한 지향을 바탕으로 삶의 노동으로 이를 실현해가는 동료들과의 만남은 이들의 지향을 실체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이 과정을 “혼자 걷던 길에 이정표가 생기고, 함께 걸을 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이렇게 살아가 되겠다”(D)는 확신이 뚜렷해지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씨앗수집 다니면서 만난 할머니들이 완전 독립적이예요. 아무리 먼 거리더라도 자기 밭까지 유모차 끌고 쉬엄쉬엄 가는 거죠. 10분 가고, 쉬고. 그러면서 일하고. 또 10분씩 가고. 쉬어가면서 집에 오고. 자기가 먹을 거 키우면서. 토종씨앗도 보관해 오신 그런 분들인거죠. 정말 자립적이죠. 티비를 보지 않아도 너무 자유롭고.” (I)

“사실 제가 대학 진학을 안 했으니깐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농사도 짓고, 사람도 만나고, 내가 보고 듣고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D)

이제 그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의 삶을 꿈꾸고,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할 방법을 모색한다. 여러 공동체를 직접 방문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녹색평론’²⁰⁾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평론을 보며 자본주의와 생태적 파괴간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책에서 제시하는 해법인 ‘소농’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상품 혹은 쓰레기’로 바꿔버리는 도시와 달리 소농의 노동방식은 흙과 함께 자율적이고 생태적인 방식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반농반엑스²¹⁾의 삶은 먹거리 뿐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자급하는

19) 퍼머컬처(Permaculture)란 자연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관계를 모방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주거, 음식, 섬유, 에너지,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체계론적 사고방식이자 원리다. 한국에선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식주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수행한다.

20) 1991년 첫 발간된 《녹색평론》은 고(故)김종철을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하여 국내외 생태주의자들의 기고를 모아내는 격월간 시사지다. 《녹색평론》의 목적은 풀뿌리 공동체와 공동체의 자연적 토대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 기득권층의 배타적인 이익실현을 도모하는 ‘세계화’와 ‘경제성장’의 논리를 거부하고, 공생(共生)과 자치의 논리를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실천을 가능케 할 방법처럼 보였다. 이에 청년들은 이를 실제화하는 다양한 체험(귀촌, 귀촌캠프)에 돌입한다.

“민들레공동체, 밝은 누리,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도 가보고. 농활 가고. 거기서 농사짓는 모습도 보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좀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고.” (G)

“우보농장에서 4박 5일 투어하면서 전국의 소농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거기서 홍성, 강원도도 가고 다 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밀양이었는데. 그때 보고 너무 예쁘고. 또 여기 있는 한 분이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반농반엑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보고 ‘우리도 저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던져봤죠. 혹시 집이 있냐. 우리 돈은 없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다행히 집이 있었고. 리모델링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I)

그 과정에서 지리산계더링, 비건탐식당, 비질모임, 에너지협동조합, 자급연구소,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등 생태적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거나, 실천적으로 이어가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를 만드는 청년들도 생겨난다. 이는 그간 생태적인 지향의 삶과 노동을 수행하며 경험한 배제의 경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러한 배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의도다.

“제가 채식할 때 디플트가 육식인 환경에서 소외감을 느꼈어요.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직장 동료 분이 결혼하시면서 결혼식도 갔고, 축의금도 냈거든요. 나중에 선물을 주시는데 논비건이 섞여 있는 거죠. 배제됐다는 감각을 받고. 회식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비거니즘을 같이 지향하면서 기후위기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가오클) 그건 다른 기후단체들이 채식의제를 다루는 방식이 하루 한 끼, 일주일 하루 이런 식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일환으로 채식 아젠다를 삼는데, 저는 동물권, 생명을 도구로 삼지 않는 그런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L)

2) 생태적 노동의 의미와 방식

“미안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운한 상태로 죽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21) ‘반농반X’라는 용어는 1995년 일본의 생태운동가 시오미 나오키의 책 『반농반X로 살아가는 법』에서 기원했다. 과거의 전업농부를 지향했던 형태가 귀촌이 청년층으로 이어지면서 농업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채우는 작은 생활을 함과 동시에 저술·예술·지역활동 등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X)’을 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사람으로서 후세대가 봤을 때 ‘이 자식이’ 이런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안함을 생산하는 일이라면 안 하고 싶어요.” (E)

청년들이 지향하는 노동은 생태적인 노동, 즉 자율적이고도 비착취적인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들의 표현을 인용한다면, ‘미안함을 생산하지 않는 삶’(E), ‘다른 존재의 희생에 기생하지 않는 삶’(C)등 이다. 이 절에선 청년들의 발화에서 비롯된 공생, 사회적 확산, 자율성 등 도출된 주제를 생태적 노동의 방식과 의미에 따라 분류·기술하였다.

(1) 상생의 노동: 관계, 연결, 순환

자율성과 비착취적 관계 확보를 위해 청년들은 기존에 익숙한 생활양식, 즉 미안함을 생산하는 일 들을 ‘덜’하는 선택지를 취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 임금노동일자리를 거부하는 방식이다. 청년 E는 임금노동이 돈과 자신의 자율성을 맞바꾸는 느낌이라며, 계약서를 쓰고 주어진 노동을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노동을 찾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변하는 노동의 양식은 단지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일상의 노동으로 뻗어나간다. 일상의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한다. 탄소배출을 일으키는 차는 적게 타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 전기사용을 최소화한다.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의 구매를 최소화한다. 생태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물을 내리지 않는 실천’을 함으로써 수자원과 관련된 착취를 단절한다. 청년 A는 이와 같은 실천을 중국 탕핑족²²⁾에 비유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착취의 고리에 얽혀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자율적으로 변혁하는 맹이라고 의미부여하는 것이다.

“허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요. 제가 하는 방식의 일들이, 소득이 자본의 축적을 위해 하지 않는 거라면, 누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탕핑족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거든요. 동아시아 활동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활동방향은 놀면서 세상을 바꾼다.” (A)

임금노동을 덜 하고, 소비를 덜하고, 파괴를 덜 하는 방식의 삶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22) #TangPing(탕핑)은 중국정부에 의해 검열된 해시태그로서 타인의 돈벌이를 위한 기계나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히피족 반문화 운동에 해당하는 중국 청년운동의 부류다. 이 운동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월경 중국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으며, 일을 그만두고 자전거 여행을 하거나, 철학책을 읽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소비를 최소화 하는 청년의 모습이 올라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됐고, 수많은 밈에 영향을 주고 일종의 운동으로 묘사되었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해당 해시태그를 엄격하게 제한했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방식의 추가노동을 수반한다. 소위 사회가 말하는 편리를 거부하는 일들이다. 사회가 주입한 필요가 아닌 '삶의 필요'를 직접 찾아내고, 구상하는 일을 실천한다. 지역 협동조합에서 화덕, 스프링도끼, 건조기, 온풍기, 화목난로 등 살림에 꼭 필요한 물건을 직접 생산한다. 일률적인 필요를 맞추는 제품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 즉 그 물건이 쓰일 장소에 맞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들을 선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30평정도의 밭과 300평 되는 논에는 화학퇴비 대신 생태화장실에서 왕겨와 함께 숙성된 퐁과 오줌을 뿌린다. 수차례의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식 축산이라는 착취를 통해 얻어낸 축분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신의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작업들은 청년들에게 비착취적인 실천이자, 연결감을 획득하는 경로로 정의된다. 생태화장실을 사용하는 청년 C는 그 노동을 통해 '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그것이 내 몸을 통해 나오고, 다시 그것이 내 땅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그리곤 기존에 도시에서 더럽다고 생각했었던 부산물들이 농촌의 삶 속에서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

“생태 화장실을 쓰면서 진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이게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그냥 어디론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왕겨랑 섞이고 썩으면서 퇴비가 되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줌이랑 퐁 하면 더러운 거라고 도시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여기서는 다 도움이 되고.” (C)

논과 밭에는 일반모종 대신 전국을 돌아다니며 채집한 토종씨앗을 심기도 한다. 물론 이 과정 또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묘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씨앗이 아닌 토종씨앗을 심는 이유는 의존으로부터 탈피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다국적기업들이 씨앗이 맺히지 않는 종자(개량종)를 판매하고, 이것만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D는 토종씨앗이 산업(화학농약)형 농업방식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설 자리를 잃어왔으며, 토종씨앗이야말로 농약 없이 자라는 환경에 적응해왔던 고유종으로서 친환경·유기농업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추구하는 대안농업에 적합한 토종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웬만하면 토종씨앗으로 토종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토종 씨앗은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그 씨앗이거든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속 내려와 사서 쓸 일도 없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가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라색 가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 다양하고. 식량 주권이랑도 이어져요. 시중에서 농약회사나 이런 데 파는 것들 보면 다 다국적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고.” (D)

농사방식은 자연농²³⁾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행농에 비하면 수십 배의 노동이 들어가는 셈이지만, 이들에게 농사란 비단 땅에 노동력을 투입해 상품을 생산해내는 것 이상 의미다. 즉, 농사라는 노동을 통해 땅과 상생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땅과 관계를 맺는 노동은 땅과 인간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다. 직접 닿는 농사를 통해 땅과 땅에 깃들여 있는 생명들을 마주하는 과정을 청년 F는 그 과정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얼굴이 있는 것처럼 사랑은 직접 닿아야 발현되는 것 같다’이라고 표현한다. 청년 G는 상품으로 만났던 수많은 자연물들을 직접 땅에서 캐내면서 다른 감각이 일깨워졌다고 말한다. 지구가 자신을 돌보는 감각,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체현하는 것이다. 청년 H는 호미로 일을 하면서 땅을 가까이서 보고, 그 속에서 이름모를 수많은 풀과 벌레를 보게 됐다고 말한다. 단어로 존재했던 자연에 얼굴이 생긴 것이다. 더군다나 그 얼굴들은 마치 수많은 고민 속에 여기까지 온 자신처럼 자신의 특질대로 살고 싶은 삶들로 여겨진다. 그런 연결감과 공감대는 애착으로 이어지며, 호미질을 조심하게 하는 노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로 만난 감자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애착이 가는 존재’로 소중해진다. 즉, 감자라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상품성으로 판단됐던 마트의 감자와는 온전히 다른 존재로 전환(transformation)이 된 셈이다.

“자연이 나를 먹이는 거. 마트에서 사서 내가 돈을 주고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 노동을 투입해서 땅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감각을 깨우는 느낌이에요. 지구가 뭐 자기 자연이 나를 진짜 돌보고 먹인다는 거를 그렇게 도시나 농사짓기 전에는 그렇게 경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G)

“자연농 치면 호미로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되게 가까이서 봐요. 그럼 거기에 어느 시기에 어떤 풀과 어떤 벌레가 있는지 더 안단 말이에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되게 호미질을 조심하단 말이에요. ... 애착이 생긴 감자를 캐는데 누가 막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감자는 다른 거죠. 나와 연결된 감각. 이번에도 감자를 캐는데 요만한 것, 못 난 것들. 이만(작은 것)한 게 있어요. 다 주워왔어요. 옛날에 버렸죠. 그냥. 지금은 다 먹어요. 아주 소중히.” (H)

자연 안의 수많은 얼굴들, 그리고 그 속에서 공생하는 관계들, 지구-자연에 대한 생각은 저 너머에서 ‘지금-여기’로 돌아온다. 상호연계성 속에서 나의 실천이 뻗어나갈 영향에 대한 고민

23) 자연농은 자연에 유사한 방식의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개입’을 목표로 한다. 경운기로 땅을 갈지 않고, 벌레와 풀을 무조건 뽑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손으로 농사를 짓고, 기존에 그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른 식물, 벌레들과의 조화를 중시한다.

이 시작되며, 내가 농사짓는 이 땅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땅과 상생하며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게 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르겠지만 애착이 생긴다고 봐요. 그 관계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농사짓는 이곳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황폐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D)

이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 직접 관계를 맺어가는 노동은 일상의 돌봄에서도 지속된다. 서로를 돌보는 다른 공동체에 방문하기도 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다. 자신의 주요 노동을 공동체 구성원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명명한 청년 C는 평소 많은 노동시간이 구성원 간에 쌓였던 다양한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는 노동 즉, 살림의 노동 역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만드는 중요한 노동이라고 명명했다. ‘대기업제품을 수시로 사먹고, 빨래방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에 신경 쓰지 않았던 과거’에 뒤안길에 있던 착취의 노동을 자신이 수행함으로써 비착취적이고도 자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살림이 정말 중요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 정리 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오전에 주로 밭일 한다 그랬잖아요. 해가 많이 뜨거워지면 들어와서 밥 먹을 준비를 해요. 셋이서 점심을 같이 먹는 것 같거든요. 그 시간에 고민이나 요새 근황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C)

지리산계터링을 하고 있는 청년 A는 계터링에 방문하는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밤을 까고, 모닥불을 지피고, 캠핑 타프를 치며 이야기하는 것이 주요한 노동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 노동을 통해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다 깊은 이야기로 나아가고, 비단 인간만이 아닌 다종 다양한 생명체들도 유심히 보면서 서로의 맥락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서로가 다른 이들이 만나 우리를 이뤄가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이야말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해가는 주요한 노동이라는 이야기다.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에 있어, 관계를 확장시키는 노동은 사람의 관계에 멈추지 않는다. 비인간동물(개)과 함께 사는 청년 C에게 하루 1시간, 2번의 비인간동물과 보폭을 맞추며 걷는 것은 주요한 노동 중 하나다. 그는 그 시간 동안 비인간동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감정교류를 한다. 그리고 그 깊은 교류의 시간은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뒤흔드는 일종의 전환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게더링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연결감이었거든요. 직접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서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작은 것들도 되게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요. 같이 일해보거나 살아보거나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풍성해지는 거죠. 더 재미있고요.” (A)

직접 닿고 연결하는 노동, 관계의 노동을 통해 청년들은 각자, 따로 살아가던 존재들이 얽혀지고 그 속에서 기대어있음을 체험했다고 말한다. 그 과정을 통해 일방적인 돌봄을 벗어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는 존재로 호명된 것이다. 청년들은 그 속에서 풍성함과 동시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비착취에 기반한 자율성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 자신의 내면 혹은 외부 공동체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년 D는 자연을 마주할 때마다 자연(自然)의 뜻을 되새기며 ‘스스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있어서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것들, 사회적 기준에 의하면 모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의 특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양한 것들이 모여 하나를 이뤄가는 모습을 볼 때 우위의 구분이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청년 A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로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비인간존재들의 삶을 이해해가게 됐다고 말했다. ‘쓸모 있는 것’ 위주로 사고하는 방식 너머에 존재하는 ‘쓸모없는 것’들에 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인식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있음을 인식하는 과정은 ‘의존’이라는 것이 지닌 부정적인 의미를 전환시켜주는 계기가 됐고, ‘서울에 겨우 붙어사는 것 같았던 청년’(G)에게 지구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A)을 획득시켜주는 일로 정의된다.

“자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는데. 스스로 자자의 그럴 연자. 그래서 생물이 살아가는 꼴,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 그걸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생물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나도 그거의 일원이라는 것. 나도 ‘나 나름대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거요. 그 감각이 저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D)

(2) 사회적 토대 만들기

이들은 생태적 노동을 통해 본인들이 경험한 것들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착취에 기반을 둔 사회체제가 지속한다면, 수많은 희생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자급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정책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방식의 노동을 수행한다. 생태적 노동이 모두에게, 그리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정의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다큐 상영회를 열고, 공부모임을 갖고, 토론회도 연다. 지역에서 함께 자급하는 농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전시회를 기획한다. 농촌 난개발을 막는 단체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며, 에너지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개발모임을 주최하기도 한다. 지역의 선순환적 교육시스템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돌봄교실 혹은 방과 후 교실을 위탁해 운영하는 이들도 있다. 지역정책이 자급의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 예산감시학교를 만들고, 정당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흐름이 지역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땀방울이 영풀로 빗자루, 짚신, 새끼를 꼬는 것을, 할머니를 찍어가며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는 이들도 있다. 도시의 동료들이 지역살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내주기도 한다. 이런 모든 활동의 기반에는 '내가 있는 자리를 바꿔나가자는 다짐'이 담겨 있다. 망망대해 속에서 대안이 없이 좌충우돌했던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며 자신이 모델이 되어 더 많은 이들이 자급의 삶에 동조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는 주체적인 선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살다보니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라는 세상은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개조해 가지고 우리 다 농사지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 길은 제가 만든다.” (D)

“(생태연구소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자급에 있어서 이런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혼자만 알기엔 아깝기도 하고. 귀한거고. 친구들이 저를 보고 조금이라도 동조될 수 있게. 동료가 될 수 있게끔요.” (I)

수도권 등지에서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관련 단체 내에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자료를 읽고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인터뷰에 참여하는 등의 일을 한다. 무급 활동가로서 상근비가 나오지 않는 일이지만, 저녁시간이 없을 정도로 회의에 연속적으로 참여한다. 국내외 단위에서 진행되는 각종 기후정의 행사 유튜브를 틀어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료들이 각자 자리에서 실천하는 생태적인 노동들이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를 만들어가는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돌봄, 행동, 정책, 행사, 조직화 팀이 있어요. 활동하는 사람이 적다보니 한 사람이 여러 팀에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제 저녁은 줌 회의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슈별로 보도자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거의 매주 (기후관련 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요. ‘식탁을 전환하는 기후활동가들’이라는 모임도 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 상근이나 반상근들과 함께 동물권

의제를 중심으로 마음나눔은 물론 각종 자료를 함께 읽고요. 동물권 관점에서 기후정의를 보는 뉴스레터를 내려고도 해요.” (K)

그 중에서는 직접행동으로 기획되는 일들도 있다. 청년 M은 밸런타인데이 때 사용되는 유제품의 착취에 대해 고발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가슴에 피를 칠하며 소가 모유를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형상화한 것이다. 청년 K는 지속가능발전토론회를 앞두고 국회 정문 앞에 자물쇠로 자신의 몸을 결박하기도, 노들섬 앞에서 사슬을 묶고 현수막을 내걸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전철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기후위기에 대해 외치고 지지를 요구하며, 포스코 앞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기후위기로 희생당한 영을 기리는 애도식을 치루기도 했다.

“비질을 리드하시고 기획하는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블리딩 니플(bleeding nipple)이라고 해서 밸런타인데이 때 사용되는 유제품으로 인해 당하는 동물들의 고통에 연대한다는 뜻으로 했었는데.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M)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토론회 있을 때인데. 아침에 국회 앞에 전기차 운전하고 가서 정문 앞에 자물쇠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는 걸로 목을 걸고 서 있었죠. 탄소중립위원회 열리는 날도 손에 사슬 묶고 현수막을 내걸려고 했고 지하철에서 기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3월에는 포스코 앞에서 기후위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이슈를 중심으로 본사 앞에서 죽은 사람과 동물들 사진 이름을 부르면서 조용히 묵념하고 그런 애도식을 했어요.” (K)

그러한 과정을 통해 느껴지는 건 ‘절실한’ 마음이다. ‘반짝반짝하고, 깔끔하고, 괴상한 도시’ 속에서 서로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그 모순 속에서 타인 혹은 사회에 대해 냉소적이었다는 K는 시위현장에서 땅에 내리꽂히는 와중에도 연결되는 마음을 지속한다. 단지 타인의 행동에 기분이 상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겹쳐져 있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내야만 연대의 범위가 넓고 지속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뻗어가는 것이다. 이 마음은 생태적 노동의 주체로서 다양한 경계를 넘어선 차별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실천으로 이어진다. 연결의 감각이 자아낸, 또 다른 관계의 확장, 생태적 노동의 확장인 셈이다.

“(직접행동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멀쩡하고 깔끔한데, 나는 절박하게 땅에 내리 꽂히면서 서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괴상했어요. 그렇지만 강렬하게 살아있다는 느낌, 솟구치는 무언가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슬퍼요. 집회 발언 때 마다 울어요. 사람이 말할 때 몸이 울리는데 내가 느꼈던 비상사태의 신호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예전엔 냉소적으로 ‘맞아,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젠 그런 부조리와 부당함에 대해 ‘왜 저

래'가 아니라 내가 안고, 내가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이니까 냉소가 사라지고 많은 것에 대해 따뜻한 마음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 처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K)

(3) 자율적으로 구상하고, 실천하기

생태적 노동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자율성이다. 청년들이 수행하는 생태적 노동 다수가 큰 범주만 있을 뿐, 작업의 방식이나 순서 등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 청년 F는 주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부품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다르다며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이 일을 하려는 이유, 궁극적인 목표, 자신의 역할’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동의 방식을 주요하게 생각한 청년 F는 ‘누군가가 추천하고, 제안한 일자리’에서 요청하는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근활동 제안을 받은 청년 L은 유사한 노동이더라도 무급 자원활동 상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상근직이 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고, 의무감으로 정해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을 주인으로 하는 것과 부품으로 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부품으로 하는 일은 관심 없어요. 작은 역할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부품이란 건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밀도 끝도 없이 과정만 알려주고 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일을 제안하거나. 그러면 그 이 일을 하려는 이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바, 너의 역할 등등을 최대한 알려주고. 또 듣고자 하는 편이에요. 일례로 제가 대학에서 영어 전공했는지 알고. 영어교사가 필요했다며, (자리를)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선택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봤어요. 거기서 배제되면 화 내기도 하고요.” (F)

“다른 단체에서 기후관련 연구, 상근 제안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선 정해진 활동을 해야 하니까. 거절했죠. 제가 제 선택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급자원 활동인 것 같아요. 의무감이 아닌 하고 싶은 활동을 한다는 그 자유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입을 위해, 돈을 위해 돈이 목적인 활동이 아니라 다른 자유요.” (L)

자율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주도적인 활동의 주체이자, 책임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하게 ‘타카를 빼는 일’을 수행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과 방식’을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정 내에서 이 일의 영향력을 고민(F)할 수 있게 된다. 노동은 더 이상 무의미한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삶의 기획 중 하나로 등장한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수업(타울)에 의해 유기농을 했던 경험보다, 자신이 직접 온갖 서적과 누리집을 활용하여 유기농의 의미를 먹거리 주권관점에서 파악하고, 유전자변형 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의 위험성, 토종씨앗의 필요성 등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더 흥미로웠다는 고백도 나온다.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주도성이 주어진 노동은 청년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감과 재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던 셈이다.

“처음엔 농사 진짜 싫어했어요. 학교에서 농사수업을 배웠는데. 그냥 노동으로만 다가왔던 수업이라. 많은 애들에게 환대 받지 못했죠. (웃음) 그러다가 학교 졸업 후에 제로웨이스트라는 말도 접했거든요. 그 전에 실천하는 친구도 있다고 하면서. 수세미를 키우는 친구를 봤고. 그래서 씨앗을 찾다보니 토종씨앗에 관심이 생겼고. 그러면서 제가 항상 GMO 무서워했거든요. 먹거리주권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그래서 소농에 대해서 고민하고. 카페 가입해서 소식도 받아보고. 씨앗도 실제로 나눔 받으면서 책임감도 생겼고. 지금은 그림책 하나하나 보면서 키우고, 인터넷과 책을 봐요.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E)

특히 작은 규모의 공동체 속에서 청년들은 대도시보다 ‘노동의 공정’을 확인하기 쉬웠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청년 F는 “여기는 도시보다 덜 분절되어 있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며 노동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고 이 안에서 자신이 역할을 조정하는 것의 즐거움을 표현했다. 다른 청년들 역시 자신이 자신의 삶에 ‘1인 기획자’가 된 것처럼 방향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율성을 획득한 청년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체험하고, 그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에 대해서 ‘안정감’을 획득하는 선순환구조에 놓인다.

“(여기 생활은) 안정감하고도 맥락이 닿아있죠. 왜냐하면 규모가 작다보니 자율권이 굉장히 커요. 제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죠. 물론 책임도 져야 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규모가 한 50명, 100명 이상으로 가면 큰 그림이 되고. 그 큰 그림을 일개 사원에게 설명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더 분절화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농촌에선 단체에서 한 명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물리적이고. 실질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보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느꼈고. 그걸 저를 자유롭게 해줄 안정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F)

3) 생태적 노동의 불안정성: 대안과 현실 사이

(1) 불인정 노동

이처럼 주체적이고도 생태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뭔가 하지 않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로 낙인찍힌다. ‘보통의 삶’에서 벗어난 이들의 삶은 멋대로

재단된다. ‘덜’하는 것에만 방점이 찍혀 ‘순진하고, 어리석은 히피’들로 불리기도 한다. 돈을 벌지 않는 활동을 무가치한 활동으로 낙인찍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활동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현재로서 귀촌을 해 자급자족을 추구하면서 부모를 경제적 부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청년 E는 누구보다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이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나를 소중히 생각해온 이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즉각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라 답했다.

“다른 분들도 ‘저한테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난 네가 뭔가를 하면 좋겠다’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활동들은 저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활동들이거든요. 돈을 벌지 않는 활동이고. 가치가 아예 없는 활동이고.” (A)

“저는 책임지려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행동이 후세대에 미칠 영향 이런 걸 고민하고. 그런데 주변에선 ‘왜 넌 보통의 삶을 살지 않냐. 일자리를 갖지 않냐. 너 하나만 편하자고 하는 일 아니냐. 무책임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빠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일이란 거 마음으로 하는데. 막상 가족은 힘들어하고 그럴 때 마음이 힘들죠. 그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E)

(2) 불안정한 생계

자급적인 농업방식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농작물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자연농을 기반으로 할 때 천 평 농사를 짓게 되면 1년 수익이 연 200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이 땅이 본인 땅이 아닐 경우 지원금혜택에서 제외된다. 소작료와 농사에 필요한 몇몇 도구들을 구입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손해가 나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사회적 인프라가 부재한 농촌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은 도시의 삶보다 때론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함이 남는다고 호소했다.

“차도 안타고 싶은데. 여기서 대중교통은 생존의 문제예요. 너무 힘들고 하루 5번 정도 (버스가) 들어오는데. 그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기사님이 워낙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썩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런 일도 빈번했고. 그래서 그냥 차를 타야겠다 싶었죠.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요. 저희는 씨앗수집하니까 전라도도 왔다 갔다 하고. 저번 달에는 한 40만 원 정도 들었죠. 기름값이며, 보험비, 엔진오일, 부품 같은 거랑 점검비랑 등등해서요.” (J)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급을 하는 사람이 돈이 뭐가 필요하냐’는 시선에 답하고 싶어 했다. 많은 이들이 자급의 삶을 온전히 혼자서 의식주를 만들고, 해결하는 일로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자급의 삶이 모든 것을 화폐 없이 오롯이 자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관계와 착취를 인식하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의료, 주거, 이동, 교육, 관계유지비용 등 일상적인 수준의 교환을 위한 화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반농반X의 삶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화폐를 얻는 일은 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서울에서 모아온 돈을 파먹고 살거나’, ‘반농반엑스에서 농사를 뒷전으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주거, 생활비, 통신비도 있고. 아프면 병원비도 들고. 그래서 한 70-80만원은 필요한데. 그제 없죠. 모든 거를 다 자급할 수는 없으니까. 쌀도 작년에 수확한 걸로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거든요. 서울 한 번 왔다 할 때 거의 8만원. 또 가서 자는 것도. 다행히 자는 건 친구 집에서 잘 때도 많은데. 세미나 회비 이런 것도 5만원인데. 은근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주거 해결도. (현금은 필요하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그래도 임금 노동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C)

“소농으로 살고 싶은 거고.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것들을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내 반경을 그렇게 꾸리면 최소한 남기는 거니까. 근데 소농으로 진입하는 순간, 생계유지의 굴레에 걸릴 것 같아요. 서울에서 모아놓은 돈을 파먹고 살면 되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H)

실제로 많은 청년들은 생태적인 노동과 오롯이 생계를 위한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동네에서 나오는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생계에 얽매이는 순간 생태적 노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적 지지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청년 K는 온전히 임금노동에 전념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동거인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 미안함이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프리랜서로 번역하거나, 토론회나, 강연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간식 사먹을 수준이라. 그건 별금을 거하게 낼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모아두고 있고. 제가 동거인이랑 살고 있어서. 거의 동거인이 생활유지비용을 부담하죠. 근데 동거인도 고소득일은 아니라 걱정이 되거든요. 계속 이 사람에게 의지할 순 없을 것 같은데. 그 미안함이 늘 있죠.” (K)

(3)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굴욕적이거나, 포기하거나

이처럼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공동체의 미래를 열심히 가꾸나가려는 청년들이지만 이들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시 부재하다. 심지어 정책지원의 자격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이들을 판단하는 '보통의 노동' 기준이 이들을 따라다닌다. 청년 C는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용한 청년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불쾌한' 시선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의 범위가 유급노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책집행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활동은 '덜하기, 자급하기, 연결하기' 등의 생태활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정책의 수혜나 받는 무가치한 사람, 게으름뱅이, 무책임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결국 '실제로는 전혀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거짓말이라도 해서' 각종 회사에 유급노동을 하겠다는 원서를 내야 하는 상황도 일어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청년 A는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시선으로 인해 깨지지 않는 상처"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취업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매달 증명을 해야 돼요. 구직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이버 진로교육 그런 사이트 있는데 그 강의 듣거나. 뭐 시선을 사로잡는 서류 면접 어찌고 저찌고. 관심없다고도 말 못해요. 그냥 이 제도 자체가 취업할 목적을 전제로 하는거라. 실제로는 취업할 마음이 전혀 없죠. 자급하고 싶으니까. 그나마 너무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상담사에게 말했더니 이런 (자급)걸로 돈 못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사분이 중년 남성이셨는데 머리는 왜 이렇게 짧게 잘랐냐 부터, 정의로운 활동도 돈이 없으면 못 한다. 조금 기분 나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C)

일부 존재하는 생태적인 노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정책의 무지가 따라온다. 자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데다가 자율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보니 사업담당자 입장에선 끊임없이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상황이 다반사다. 하지만 자연과 어떤 연결감을 가지게 됐다거나 자존감을 회복했다거나 등등의 이야기를 정량적으로 입증하기란 어렵다. 결국 입증을 피하기 위해선 사업을 받지 않거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많은 공모사업에서 인건비 책정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인건비를 동료를 통해 돌려막는 것이 활동가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처럼 번져있다. 변칙에 변칙이 더해지는 형국 속에서 청년들의 피로는 누적된다.

“(정부예산 받는 게) 엄청 소모적이에요. 소모적이고. 또 명확한 결과물이 없는 곳은 지원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즉흥성이나 그때 그때 만들어진 의견으로 움직이는 활동인

데. 저희는 그래서 이걸 그 틀 안에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답한거죠.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의심에서 시작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틈을 계속 의심하는 거죠.” (B)

또한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이미 정해진 ‘목표’를 잘 수행할 단체를 모집한다. 때론 각 정부 정책의 성격에 따라 그 목적과 세부방안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시스템에선 청년들이 말하는 체제전복 등의 다양한 전향적 사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다보니, 늘 똑같은 방식의 내용과 교육,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사업만 팽배한 상태다.

“(또 공모사업에서) 체제전복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면. 공모사업에 안 되는거고. 그러다보니 될 만한 이야기만 하는 거고. 변화가 더딘 거고요.” (B)

“정부가 주는 돈을 받으면 독립성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보고서를 쓰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결과물을 채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걸 잘 빠르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보니 농작물 생산보다 지원이 끊어지지 않으려는 월급쟁이 농민도 생기고 그러니까.” (F)

결국 자율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자율을 내려놔야 하는 형용모순이 발생한다. 그나마 숨통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생태적 노동을 지원한다는 공모사업은 그 근본적인 창의성과 재미, 독립성을 앗아간다. 결국 그 자리엔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갈등의 씨앗이 움튼다. 이쯤 되면 청년들 사이에선 창발성을 살리면서 정부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간다.

“지원 사업동아리도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요. 그러다보니까 주는 사람 입장 고려하고, 그 사람이 더 마음에 들 만한 결과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형식에 맞추거나. 그런 식 인거죠. 창의성이나 재미가 없어요.” (E)

“(정부) 지원받으면 안돼요. 곤란해져요. 저희는 그렇게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그 일에만 매달려야 하고. 농번기라고 시간을 빼주진 않을 거잖아요. 또 사실 성과도 요구하는데 과연 그런 걸 곧장 낼 수 있으련지.” (I)

결국 누구보다도 삶의 안정을 추구하지만, 불인정노동, 불안정한 생계, 부재한 정책까지 불안정이 배태된 삶의 한 가운데 서게 된 청년들의 모습이 생태적 노동의 일면이 되버린 상황이다. 청년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나, 학자금 등의 빚을 떠안은 주변

청년들에게 이런 삶을 추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 삶이 주는 행복이 크지만, 당장의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에게겐 와보라고 하는 것조차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년 B는 생태적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운 덕분이라고 말했다. 청년 E는 친구들에 비해 본인이 '지름길에 서 있는 것처럼, 여유로웠다'고 표현한다. 주변인들에 비해 기회도 있었던 데다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적자본이 뒷받침되었다는 이야기다.

“저는 운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지지해주는 부모님이라던가. 그런 걸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다닌 거죠. 그리고 만난 사람들. 그런 것들이 저를 여기로 끌어왔겠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공간도 만났고요.” (B)

“활동하면서 만난 친구들은 거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 대부분은 ‘그냥 월세나 생활비 벌려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동안 라면만 먹었대’ 그런 소리가 들리는거죠. 아마 어려우니까 그런 활동을 접하거나 시도할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저는 항상 제가 지름길에 서 있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E)

5. 결론

노동이 즐겁다고 말하며, 노동과 삶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다. 사실 걸보기엔 ‘실업자’에 불과한 이들이다. 이들은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등 흔히 말하는 노동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것도, 스타트업의 사장 혹은 자영업자가 되어 자율성을 획득하며 삶의 성취를 일궈내려는 이들도 아니다. 이들의 욕구는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생경한 단어 ‘자율’과 ‘비착취’에 기인한다. 이들은 그 삶을 위해 유급노동을 거부하고, 자급자족의 삶을 실행하겠다고 농촌에 내려간다. 트랙터 옆에서 호미를 들고 농사를 짓고, 토종씨앗을 찾아 전국을 누빈다. 기후정의의 외치며 국회 앞에 스스로 몸을 매어내고, 도살장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가슴에 피칠갑을 하고 대중들에게 동물의 아픔을 느껴야 한다고 소리친다. 이들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는 소위 ‘이해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청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고, 생태적인 노동을 만들어나가는 이들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온전히 현 시대의 노동관과 빗겨나는 그들에 대한 궁금증과 괴리,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계기로 생태적인 삶과 노동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과 의의는 무엇인지, 그러한 경험이 내재한 불안정성은 무엇인지를 묻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생태적 노동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 ‘노동의 방향’ 등을 둘러

싼 치열한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착취의 고리 속에 얽혀 있는 나와 다른 존재들을 발견하는 지점에서 사유가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러한 착취의 고리가 만들어내는 풍요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다양한 시도를 해나간다. 하지만 기존의 살아온 삶의 방식, 노동의 형태와 다른 선택을 해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안을 본 적도,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었기에 척박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삶과 노동'을 찾아나갔다. 돌아갈 수도, 전진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수많은 방황과 혼란 끝에 그들은 한파를 견뎌낸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삶을 살아온 '지금-여기'의 동료들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생태적 노동은 삶의 지향과 얽히며 변주를 해내고, 훌륭한 합주를 이뤄낸다. 그들은 풀숲에 앉아서 나무에게 기대어 있기도 하고, 동료들과 모닥불을 켜놓고 밤을 새어가며 이야기를 한다. 직접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적정기술을 추구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기술을 전수받기도 한다. 생태화장실에서 배변을 하고, 왕겨를 뿌려가며 분노를 만들고 밭에 뿌린다. 호미로 농사를 지으며 수많은 풀들과 벌레들의 얼굴을 알아간다. 기대어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세계와 조우하는 과정에서 '자율성-비착취'의 연대를, 진정한 평화를 선물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노동'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을 던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노동이라 불리지 못하는 노동'이야말로 GDP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수많은 노동들이었으며, 진정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임을 깨달아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노동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자연이라는 범주로 묶여 착취의 그늘 아래 있는 수많은 생명을 돌보는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노동과 삶이 얽혀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적 고민과 실천을 이어나간다.

이들의 노동궤적을 관찰한 결과, 이들은 녹색계급²⁴⁾이라 불릴 만 했다. 이들은 지구공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에 멈춰 있던 돌봄을 지구까지 확장시켰으며, 공유의 감각을 통해 연대의 윤리를 확고하게 만들었고, 모두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자기이해적 재생산운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들의 노동방식은 '체험된 세계의 수호'로 표현된다. 이들은 세계에서 자신의 행위의 귀결을 보고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했다. 상품경제에서 끊임없이 주입되는 필요가 아니라,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각 개인'이 사고하고,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규범을 만들어 이를 자유의 영역과 조정해나가는 일이다(Gorz, 2015).

이들을 보며 나치 시대의 에텔바이스 해적²⁵⁾을 떠올린다. 에텔바이스 해적은 청소년기부터

24) 녹색계급은 생산, 번영, 발전이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을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생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구차원의 거주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은 지도층이 부과한 위계질서에 저항하고,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자 소유자라는 근대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탈인간중심주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Latour & Schultz, 2022).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교육받았으며, 군대식 명령체계에 편입됨으로써 군인적인 행동양식을 주입당했다. 하지만 나치로부터 자율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대안적 활동을 만들어낸다. 때론, 나치를 도발함으로써 재미를 느끼고 우월감을 가지며 저항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해당 집단을 연구한 포이케르트(Peukert)는 모든 인간이 구조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러 사례를 통해 주어진 사회경제적 관계와 지배체제를 가공하며, 스스로를 주요 담론으로부터 준별시키고,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자발성을 보여주는 이들을 찾아나선다. 이는 그의 표현처럼, ‘환상적’인 일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나치라는 열악한 말살의 시대 속에서도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 낸 이들의 이야기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 타율과 착취의 노동이 만연한 겨울의 한복판, 자유를 갈망하며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희망의 봄바람인 이유다.

하지만 순응과 저항이 공존하는 시대에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유급노동’이라는 틀은 보이지 않는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실업자’로 취급하며, 그들이 재/생산하는 가치와 노동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적영역에 포괄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로 역할을 수행하거나, 각종 조건성에 부합하기 위해 자율성을 버려야 한다. 결국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이들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선의에 기댈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 혹은 타인에게 선의를 간구하는 과정은 이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잠재적인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처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묵과하는 사회정책의 부재 혹은 조건성은 이들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Standing, 2020: 29). 결국 확고한 대안을 추구하는 삶을 구축했음에도 일상의 삶은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건 ‘운’ 뿐이다.

개개인이 필요에 대해 스스로 정의하고, 필요한 것들의 소비를 최소화하더라도, 필수품 생산의 사회화와 분배 및 교환 등 ‘전반적인 균형’을 담당하는 중앙기구의 역할은 중요하다(Gorz, 2015). 유급노동에 한정된 불안정성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고, 진보적 대안세계를 구축하는 청년들의 생태적 노동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공적개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생태적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먼저 포괄적인 사회인프라 및 보편적 소득

25) 1930년대 말 서부 독일에서 등장한 에델바이스 해적은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로 히틀러 청소년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 시간을 즐기면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집단이다. 이들은 주변의 휴양지로 주말여행을 떠나, 인근에서 모여든 다른 그룹과 만나 야영하고 노래를 부르고 토론하며 히틀러 청소년단 순찰대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공식기관들은 에델바이스 해적에게 성적 방종의 이미지를 덧씌웠지만, 실상 이들의 노래와 활동의 근간에는 자유에의 욕구가 담겨 있다. 민족공동체라는 추상적 신조를 강조했던 나치와 달리 그들의 노래에는 개인의 향락, 긴장, 연대감, 구체적인 삶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결국, 게슈타포와 히틀러 청소년단은 에델바이스 해적 집단을 강력하게 억압했고 그들에게 걸려든 수천 명의 청소년들은 억압 속에 죽어갔다(Peukert, 2003).

보장의 구축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삶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형태가 아니다. 공공인프라가 구축된 형태에서 최소한의 화폐로 삶의 필요를 스스로 결정하고,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안하는 삶이다.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등을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고, 자급-생태 농을 할 수 있는 땅이 주어진다면, 크지 않은 소득에도 삶의 형태를 전환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입증을 최소화하는 형태²⁶⁾를 제언한다. 각종 실업급여 등으로 생태적 노동의 의미를 말살시키는 정책은 물론, 현재 진행되는 각종 공모사업 위주로 생태적 노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지원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일자리 형태로 생태적 노동의 범위를 한정 짓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생태적 노동의 타율성을 부가하는 것으로, 생태적 노동이 지향하는 '자율'의 지향을 침해하는 행위다. 다만 생태적 노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득지원이라는 단서가 붙게 되면 정책 실행에 앞서, '생태적 노동'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 수 있다. 청년 당사자들은 생태적 노동 참여소득 초기 도입 시에는 최소한의 조건을 두되, 향후에는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발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가부장적 사회정책이 할 수 없는 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주체성을 높여 더 많은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Standing, 2020: 30). 본 연구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다. 진보적인 정부는 국가의 권력을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는 사회정책이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자유를 모두에게 허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둘째, 평등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각종 사회정책이 기존의 공동체를 통해 지원되거나, 각종 담당자를 통해 전달된다. 이에 생태적 삶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지만 생태적 노동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기존 공동체 구성원에 비해 이방인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질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는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전달과정이나 소통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공동체 내의 불균형한 구도를 바꿔내기 위해선 개별성에 기초한 정책을 마련하여 각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적 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평등한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갈등의 원인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끊임없이 피드백하며 공동체 구성원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주조하고, 정책전달체계를 재조정하는데 애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26) 이승윤·백승호(2021)는 사회정책이 생산적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까지 포괄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태적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참여소득을 주장한다. 일자리가 아닌 참여소득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생태활동을 포함한 다증적 활동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생태적 삶과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체험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주변 친구들이 본인과 유사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실천으로 이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을 더했다. 즉, 자신이 생태적 삶과 노동으로 이어낼 수 있었던 건 비(非)제도권 영역에서 ‘운 좋게’ 생태적인 삶에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청년들은 이처럼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인연을 만나고, 삶이 변화하는 경험”을 한 것처럼,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적 삶과 노동에 대한 교육과 체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태적 삶에 대해 교육받고 논의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 늘어나고, 생태적 노동을 체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개인 및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급노동을 넘어선 다른 형태의 노동에 주목했다. 특히 삶의 서사 속에 놓인 노동을 관찰함으로써, 생태적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이 갖게 되는 의미와 불안정성에 대해 함께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생태적 노동이 현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이런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태사회에 적합한 사회정책의 모형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제언했다. 후속연구로 보다 많은 생태적 노동의 의미와 불안정성에 대한 양/질의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생태사회라는 대전환의 물결이 저 너머에서 ‘지금-여기’로 밀려올 것이니 말이다.

■ 참고문헌 ■

- 강순희. (2014).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연구. 87. 317-347.
- 강지연. (2021). 여성중심 도시농업의 공동체경제와 지역돌봄. 농촌사회. 31(2). 65-13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용노동부. (2022).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충남: 고용노동부.
-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 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 권혜영. (2016).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사회정책. 23(1). 151-178.
- 김규혜, 이승윤, 박성준. (2020). '취업'과 '실업'의 사이에서: 청년이직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7(4). 49-85.
- 김도균, 이평주. (2013). 지역환경운동의 형성과 도전. ECO. 17(1). 121-161.
- 김석호, 주윤정, 성연주, 김지애, 김은지, 이상규, 김홍중. (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24. 289-331.
- 김성희. (2015).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노동연구. 31. 5-37.
- 김윤경(역). (2017).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Izumiya, K. (2017). *仕事なんか生きがいにするな*. 서울: 북라이프.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재명. (2021). 한국개신교의 '생명평화' 운동과 사상. 종교연구. 81(3). 79-106.
- 김조롱, 오세일. (2017). 대기업 청년 퇴사자의 진정성과 자기계발. 사회이론. 51. 103-139.
- 김학이(역). (2003). 나치 시대의 일상사. Peukert, D. (1982). *Volksgenossen und Gemeinschaftsfremde*. 강원: 개마고원.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효정. (2013). 비혼 여성 활동가들의 공동체 농사를 통해 본 도시농업의 여성주의적 실천 가능성. 29(4). 113-154.
-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 노경아(역). (2019). 반농반X로 살아가는 법. 鹽見直紀. (2016). *半農半Xの生活*. 서울: 더숲.
- 명수민, 이영룡. (2015).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생협평론. 19. 41-57.
- 문수연, 손명아, 송리라. (2021). 청년 조리사의 불안정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7(3). 347-397.
- 문영만. (2018).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2차 유출 결정요인. 지역고용노동연구. 8(1). 73-105.
-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선미. (2020). 흥동 '자연재배논모임'으로 본 현대 공동체문화. 실천민속학연구. 35. 515-553.
- 박소영. (2020). 알코올중독 문제가 있으나 치료 경험이 없는 남편을 둔 배우자의 결혼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3). 5-27.
- 박완희, 홍의동, 연경환, 황희연. (2014). 도시생태공동체 형성과정 분석. 환경정책. 22(4). 87-117.

- 박종훈, 이경재, 이성우. (2018). 지역 노동시장의 산업구조를 고려한 청년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 30(4). 133-160.
- 박주상. (2019). 부산지역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의 동서격차.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305-333.
- 백은미. (2012). 생협운동 경험을 통한 여성들의 살림가치에 대한 의미 고찰. *여성학연구*. 22(2). 71-107.
- 손주영. (2000).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과제.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16. 83-101.
- 신경아. (2017). 20대 여성의 새로운 노동정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6(2). 81-124.
- 신유란. (2017).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경제주평*. 756. 1-16.
- 오유진, 김교성. (2019).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19(3). 1-35.
- 옥필훈. (2015).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독교환경운동과 선교신학적 발전과제. *종교문화학보*. 12. 1-30.
- 유기쁨. (2009). 한국 종교계 생태 NGO의 전개와 성격. *종교교육학연구*. 29. 159-181.
- _____. (2016). 장소에 기반을 둔 풀뿌리 종교생태운동의 모색. *남도문화연구*. 30. 33-65.
- 유진성. (2015).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 *KERI Insight*. 15(42). 1-24.
- 윤명희. (2021). 디지털 창의노동. *문화와 사회*. 29(1). 91-148.
- 윤여일. (2020). 생태보전을 위한 지역의 자발적 시민활동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ECO*. 24(1). 265-302.
- 이광석. (2018). 도쿄와 서울을 잇는 청년들의 위태로운 삶. *언론과 사회*. 26(4). 140-215.
- 이규현(역). (2022). *녹색계급의 출현*. Latour, B., & Schultz. (2022). *N.Mémo sur la nouvelle classe écologique: Comment faire émerger une classe écologique consciente et fière d'elle-même*. 서울: 이음.
- 이명호. (2022). 생태위기와 환경운동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미 탐색. *신종교연구*. 47. 29-55.
- 이상아, 이승윤. (2018).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노동정책연구*. 18(2). 27-59.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2). 569-581. (2009. 12. 18).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의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승윤, 박경진, 김규혜. (2019).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판사회정책*. 64. 181-239.
- 이승윤, 백승호. (2021). 생태적 전환을 위한 '참여소득'의 가능성. *시민과세계*. 39. 129-168.
- 이승준, 박진근, 안영일. (2010). 대전지역 청년실업 해소방안. *사회과학논문*. 28(2). 141-203.
- 이찬영, 조세형. (2014). 광주지역 청년층의 실업요인 분해. *한국지역경제연구*. 29. 55-74.
- 이현서, 심희경. (2016). 청년층 이직과정에서 나타난 일 경험과 일의 의미. *문화와 사회*. 22. 283-348.
- 임희근, 정혜용(역). (2015). *에콜로지카*. Gorz, A. (2008). *Ecologica*. 서울: 갈라파고스.
- 장민. (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 VIP 시리즈*. 9. 1-60.
- 전명숙. (2018). 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연구. *산업노동연구*. 24(2). 215-245.
- 전현중. (2017).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추이분석. *한일경상논집*. 77. 67-86.
- 정규호. (2008). 생태적공동체운동의 의미와 역할 및 과제. *경제와 사회*. 78. 57-82.

- 조국현. (2016). 시설의 청년실업 담화 분석. *독어교육*, 67, 75-98.
- 조미성, 윤순진. (2016). 에너지전환운동 과정에서의 생태시민성 학습. *공간과 사회*, 26(4), 190-228.
- 조은수. (2011). 지울스님의 생태운동과 에코페미니즘. *철학사상*, 41, 127-149.
- 조혜련. (2014).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과정과 맥락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형익, 이미숙. (2019).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창원시 제조업 청년노동자 실태분석. 14(3), 33-57.
- 채구묵. (2004).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한국사회복지학*, 56(3), 159-181.
- 천주희. (2019). 회사가 괜찮으면 누가 퇴사해. 서울: 바틀비.
- 최나현. (2020). '자기만의 방'을 만드는 사람들. *여성학연구*, 30(1), 45-76.
- 최용환. (2015). OECD국가의 '청년니트' 유입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4), 85-115.
- 최지수, 김은비. (2019). 고졸청년의 미취업 원인에 대한 인식이 구직기준(취업높이)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9(1), 145-166.
- 최혜영. (2021). 사회운동 참여와 정치의식의 성장: 강정지킴이 체험과 생태, 평화, 여성의 가치.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주희. (2017). 전남지역 청년여성의 고용 불안과 일 경험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7(3), 105-148.
- 허나형. (2021).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실업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지*, 31(1), 23-49.
- 허택(역). (2014).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Ilich, I. (2000). *The Right to Useful Unemployment: And its professional enemies*. 서울: 느린걸음.
- 홍덕화. (2018).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이상과 현실: 한 살림 서울의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ECO*, 22(1), 243-276.
- “자급자족, 공동자산으로 농촌청년 모으자”. *단비뉴스*. (2023. 01. 04.)
- “자연 그대로지만 정교하게, 영속적 농업 희망 일구다”. *한국일보*. (2015. 04. 11.)
- “제로웨이스트? 할때는 원래 그래 살았다”. *경남도민일보*. (2021. 11. 26.)
- 멸종반란한국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xrrok>
- 생태적지혜 홈페이지 <https://ecosophialab.com/>
- 우프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oofkorea.org/>
- 지리산게더링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jirisan_gathering/
- 퍼머컬처 학교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ermacultureschoolkorea/>
- 항꾸네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ngkkune/>
- Creswell, J. W., & Cheryl, N. P.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s.)*. London: Sage.
- Epstein-HaLevi, D. Y., Silveira, F., & Hoffmann, M. (2021). Eco-activists and the utopian project: The power of critical consciousness and a new eco imaginary.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30(1-2), 13-33.
- Herbert, J. (2021). The socio-ecological imagination: Young environmental activists constructing transformation in an era of crisis. *Area*, 53(2), 373-380.
- Ingalsbee, T. (1996). Earth First! activism: Ecological postmodern praxis in radical environmentalist

identities. *Sociological Perspectives*. 39(2). 263-276.

Marris, E. (2019). Why young climate activists have captured the world's attention. *Nature*, 573(7775). 471-473.

Pellow, D. N., & Brehm, H. N. (2016). From the new ecological paradigm to total liberation: The emergence of a social movement frame. *The Sociological Quarterly*, 56(1). 185-212.

Snape, D., & Spencer, L. (2003). The founda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In Ritchie, J. & Lewis, J. (Eds.),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A Guide for Social Science Students and Researchers* (pp.1-23). London: Sage.

Standing, G. (2020). *Battling Eight Giants*. I.B. Tauris.

_____. (2022). Precarity and prospects for commoning: A conversation with Guy Standing. *Emansipation*. 1(3). 1-20.

Abstract

Exploring the Meaning and Precarity of Ecological Labor: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Young Eco-activists

In-jung Han* · Ji-eun Le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s and methods of ecological labor adopted by young people who aspire to lead an ecologically sustainable lifestyle. Given the current climate crisis,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people are embracing ecologically responsible practices and striving to establish labor practices that align with their beliefs. However, despite this trend, the specific meanings and ways of such labor remain unclear, and many young people face exclusion from relevant policies and precarious circumstances. For this analysi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4 young individuals who are committed to ecological living. Our research focused on exploring the meaning and methods of their ecological labor and the challenges they encounter.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participants aspire to a life characterized by autonomy and non-exploitation, which stands in contrast to their experiences of transactional and exploitative labor. They strived to establish a self-sufficient and ecologically sound form of labor that aligns with their goals. This type of labor had enabled them to recognize the various forms of labor that are not accounted for in GDP a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worldview of symbiosis. However, young people who engaged in unfamiliar forms of labor were often stigmatized as socially “unworthy,” excluded from relevant policies, and left in a precarious position, with their livelihoods threatened. Only a few fortunate individuals were able to secure labor that aligns with their values and aspirations. This narrative highlights the need for more inclusive policies that support young people who engage in various forms of ecological labor with distinct meanings and methods.

Keywords: ecological labor, ecological life, the youth, labor experience, precarity

◆ 2023. 1. 15. 접수 / 2023. 2. 19. 1차수정 / 2023. 3. 8. 게재확정

* First Author, Ph.D.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hanpalme@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rosmary789@gmail.com)